북한매체 보도 동향

1. 농업정책

□ 농업정책

○ 현실 속에서 찾은 방도(로동신문 7.28)

· 김정일은 “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한다”라고 말함.

· 염주군 다사협동농장에서는 간석지 제방이 한눈에 보이는 포전머리에서 논물관리공들의 협의가 있었는데 이 농장은 간석지 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이어서 논문관리공으로 하여금 논벼들이 염기피해를 받지 않게 논물의 깊이대기와 갈아대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였음.

· 농장에서는 새로운 물대기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였음. 그중에서도 농장의 지리적 특성에 맞게 몇 개 작업반씩 물을 집중적으로 대주자는 안이 혁신적이었음.

· 농장에서는 이 물대기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구역별로 물을 집중적으로 대주는데 맞게 비료와 농약을 친 날짜를 고려하여 두 개 작업반씩 물을 몰아서 순환식으로 보내주기로 함.

· 이렇게 논문관리공들과 비료시비공들의 연계가 밀접해지고 협동이 잘 됨으로써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.

3. 감자농사

□ 감자농사 정책

○ 감자 농사 방침을 잘 따르자(로동신문 7.11)

· 김정일은 “감자종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이다”라고 말함.

· 로동자회의를 앞두고 군과 당의 일군들은 주체농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 농사일에 힘쓰고 있는데 특히 농기계들의 운용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· 신흥, 농사동, 창평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의 기계화일군들은 농기계들을 소중히 다루어 매일 맡겨진 계획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음.
· 삼지연군에서도 감자밭 가꾸기에 힘쓰고 있는데 군일군들은 비가 자주 내리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는데 맞게 병충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.

▢ 비료

○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(로동신문 7.23)

· 김정일은 “거름더미는 곧 쌀더미라는 구호를 들고 질 좋은 거름을 논밭에 더 많이 내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한다”고 말함.
· 단천시 돌산협동농장에서 풀베기작업을 앞두고 농장일군들은 작업반, 분조들을 돌아보면서 풀베기를 준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풀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베어서 어디에 보관해 둘 것인지를 정하였음.
· 또한 베어 놓은 풀을 옮길 방법도 상의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배처럼 넓은 널판자로 만든 함을 띄워 놓고 거기에 풀단이 가득차면 끌어내자는 의견이 가장 합리적이어서 결정함.
· 빈틈없이 준비를 갖추고 시작한 풀베기는 처음부터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음.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성과에 만족함 없이 로동당대표자회의를 앞두고 당면한 풀베기를 계속 힘차게 추진함.

○ 열흘 동안 백 수십 만 톤의 풀을(로동신문 7.29)

· 김정일은 “협동농장에서 풀베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라고 말함.
· 각지 농촌 당 조직들에서는 당면한 풀베기작업에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· 알곡증수의 커다란 예비의 하나가 풀 거름을 많이 생산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작업에 나선 각지 농촌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작업에 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풀베기작업에 구슬땀을 아낌없이 흘리고 있음.
·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풀베기 작업을 시작한 덕성군, 고원군을 비롯한 함경남도안의 농촌들에서는 매일 계획보다 많은 풀을 베어 작업반, 분조, 세대별로 만들어 놓은 퇴적장마다 쌓아 놓고 있음.